

전투독서

0. 책을 읽는 이유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걸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 가능하다.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세계관이 넓어진다.
나의 선입견을 깨고 나를 돌아본다.

책을 읽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하다.
와닿지 않았다.
책의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다.

SNS를 탐방하다가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의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이다.

(저 문장의 출처를 알아보니 3,000억 자산가로 유명한 디쉐어 현승원 의장의 이야기였음을 알게 되어 출처를 밝힙니다)

책을 읽으면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
아직 내 몸의 세포까지 변하지 않았다.

책을 읽고 실행하지 않으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내가 읽고 마음에 든 건 무조건 실행한다.

실행을 통해서 '경험'이 가미가 되면

지식은 지혜가 된다.

이것을 체득화 과정이라고 한다.

1. 경제/경영/자기계발 책을 계속 읽는 이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똑똑해져야 한다.

똑똑한 사람이 법, 돈, 문화, 시스템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똑똑해지는 지는 과정에서 독서는 필수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올바른 습관만 들이면 시간도 적게 들일수 있다.

나는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경제/경영/자기계발 책을 놓지 않고 읽는다.

목적이 명확하다.

편안하게 여유롭게 읽지 않는다.

한 글자 한 글자 필사를 하기도 한다.

하루에 1~2페이지를 읽더라도 생각을 정리해 나가고 그날 실행하려고 노력한다.

2. 전투독서

마케팅 100권 읽었다고 10권 읽은 사람보다
더 마케팅을 잘한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내일 당장 책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자.

그 시험에 떨어지면 내 돈, 내 소중한 사람, 시간을 잃는다.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실제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후로 삶이 달라졌다.
이전보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다.

전쟁에 참여하기 전 장군에 마음으로 책을 읽는다.
'오늘 읽은 문장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이렇게 되면 책 읽는 속도는 느리지만 책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책을 읽는 경우가 적어지며
책을 칼국수 면 뽑듯이 쭉쭉 진도를 뺄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책장이 딱 차서
지금은 10년 전 책을 다시 읽고 또 실행하고 있다.
책 값도 아끼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책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투독서이다.

전투독서의 실행법은 간단하다.

책을 읽고 나의 언어로 전환하고 실행한다.

다시 한 번!

책을 읽고 나의 언어로 전환하고 실행한다.

실행한다.

한 번 더...

책을 읽고 나의 언어로 전환하고 실행한다.

실행한다.

한 번만 더...

책을 읽고 나의 언어로 전환하고 실행한다.

실행한다.

전투독서 Case

내가 보험영업을 하던 시절이다.

1년 동안 남대문 꽃시장에 새벽에

전단지 돌리면서 보험 영업을 했다.

단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다.

그곳에는 이미 20년 넘게 시장을 장악했던

보험설계사 아주머니가 있었다.

계약이 나올 수가 없는 시장을 선택했던 것이다.

중고 책 파는 플리마켓에서 보험 영업책을

하나 구입해서 읽고 실행했다.

내 방법이 틀렸음을 알았다.

접근방법, 전략 모두 잘못됐다.

남대문시장에서 20년 넘게 다니던
아주머니와의 차별성을 위해
세미나 마케팅을 시작했다.
무료 강의를 열어서 나를 알렸다.
그때부터 소개가 나오고 계약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책을 3개월 동안 읽으면서 실행했다.
계약규모가 크지 않지만 (내 그릇에 맞는) 작은 계약들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내 통장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다.
그것을 반복해서 지하에서 1,500만원 월세방에서 해당 건물의 1층 집으로 이사했다.

3. 전투독서 실행하기

구체적인 실행법(전술)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것이 Best이다.

Best를 아직 찾지 못했다면 내 방법을
기준 삼아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1회차

핵심적인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한다.
메모를 남기고 싶다면 빨간펜/파란펜을 쓴다

2회차 형광펜 칠한부분만 읽는다.

3회차 -> 글을 쓴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을 고르자

전투독서는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전투독서는 빠르게 읽어야한다. 기간도 정해야 한다.

전투독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책이 깨끗한지 보면 된다.

치열한 전투를 치른 장군의

몸에는 작은 상처 하나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

책을 너털너털하게 만들면서 지혜를 쌓아 나간다.

구입하면서부터 중고 책으로 팔 생각이 드는 책이다?

그럼 구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속독은 하지 않는다.

나는 책 읽는 속도가 곰뽕이만큼 느리다.

읽어야 할 책은 세상에 많은데

시간은 한정적이다. 초조함이 들었다.

속독법 관련 강의/책을 보았지만, 나에게에는 맞지 않았다.

글자를 읽어나갈 뿐 내 머릿속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책을 읽었다라는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투독서 세부 스킬 (색갈펜, 형광펜)

(1) 색갈펜: 본인이 생각하기에 눈에 띄거나 좋아하는 색깔 아무거나 써도 된다. 대부분 빨간 펜을 쓴다. 나도 그렇다.

펜으로는 밑줄을 긋는다. 핵심 키워드(명사, 단어)는 네모 박스를 친다.

(2) 형광펜: 감명 깊거나 기억/기록하고 싶은 문장 전체를 강조하는 데에 쓴다.

이 작업을 해놓으면 2회차 이후 독서할 때 색갈펜/형광펜 칠한 곳만 보면 된다.

4. 책을 고르는 기준

내가 책을 고르는 기준이다.

본격적으로 독서를 한 게 이제 15년밖에 안됐으니

매우 주관적이고 편협할 수 있다.

(1) 외국 서적을 주로 본다.

남이 만들어놓은 책을 짜집기한 책은 안 본다.

(2) 저자의 프로필/머리말/맺음말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꼭 본다.

종이책 및 전자책 그리고 교재를 만들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머리말과 맺음말이다.

여기에서 책에 대한 애정/진심을 엿볼 수 있다.

(3) 목차

어떤 형태로 글을 썼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다.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썼는지 에피소드 중심으로 썼는지
파악하면 독서 전략이 나온다.

예를 들어 에피소드 중심으로 쓰인 책은
필요한 부분만 읽고 나중에 읽는다.

(발췌식)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쓱 파악해 놓는다.

(4) 가독성

아무리 좋은 내용도 안 읽히면 소용없다.
안 읽히면 안 산다. 몸에 좋은 것도 좋지만 맛있어야지 계속 먹는다.

맛있는 책이 좋다.

5. 전투독서의 최적화 형태 (스터디)

북스터디가 좋다.

나는 게으르고 의지가 약해서 끝까지 읽지 못한 책이 절반이 넘었다.
북스터디를 시작하면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끝까지 읽는다.

책을 읽으면 기버(Giver)가 될 수 있다.

기버는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책을 읽고 나눔 할 때 쾌감은 해본사람만이 안다.

몇만 원 더 내고 그 책을 내 것으로 만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수익으로 돌아온다.

수익률은 최소 1000% (10배) 이상을 목표로 둔다.

+ 경제/경영 북스터디 나눔 Tip

(1) 여러 번 읽어야 할 핵심 / 실행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을 공유한다.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

책을 읽고 실행한 경험담을 나눈다면 더욱 좋다. 이보다 좋은 나눔은 없다.

(2) 오픈마인드&경청 (태도)

(3) 자신의(사업 중/또는 예정) 아이디어/기획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다

(4) 시간 관리자를 둔다

(타이머를 사용하되 보이지 않게 한다, 보이면 초조함)

(5)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사고의 확장)

(6) 나눔 할 준비가 부족하다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면 된다.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다음 순서 때 해도 될까요?"

전투독서는 계속됩니다.

부자가 될 때 까지....

감사합니다!

P.S

전투독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눈빛으로 확인한다.

눈빛을 보면 먹이를 노리는 치타와 같다.
농담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독서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된다.